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 43:14-21)

하나님은 우리 안에 꿈과 열정과 비전을 심어놓으셨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또한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기소침하여 실망하고 좌절하며 자신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뛰어 갈 생각을 포기하고 서있는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 마귀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불철주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도 여러 번 시련을 겪으면서 의기소침해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딤후 1:6)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씨앗이,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사 43:19)

여기에 새 일은 우리의 능력과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사 43:18)

하나님이 언제 새 일을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실패한 과거를 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하십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케리는 “위대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그간 살아온 인생 가운데 몇 번의 실패를 했습니까? 몇 번 기회를 놓쳤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he best is not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려고, 정복하려고 존재하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런 위대한 씨앗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God who does a new thing

(Is. 43:14-21)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God planted a dream, passion, and vision in us, and he also gave us power and wisdom to accomplish them. Nevertheless, we live our life by being disheartened, disappointed, and frustrated without self-confidence. Moreover, we are not excited about our life and future. At some point, we give up thinking of running and we sit on the ground where we are.

It is because of our enemy, the devil. It brings mean devices, and obstructions by day and night in order that the blessed seeds in our mind cannot be rooted and fruit cannot be born.

While a young preacher, Timothy had experienced his hardships several times, he had ever been depressed. At that time, the Apostle Paul gave the words to Timothy, the son of faith, "For this reason I remind you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which is in you through the laying on of my hands" (2 Tim 1:6). There are always the wonderful seeds and wonderful potentiality that were given by God to us.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s 48:19).

Here, the new thing cannot be made by our power and experience, but God makes it. It never existed, but it is God who starts to work it.

Even though our life became the wild plain of life, it is God who makes the road in the wild plain (v. 19).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Is 43:18).

When does God start a new thing? He starts it when we forget our past failure and we see God with the eyes of faith. There is no one who does not have any injury. Incidentally, God cannot start the new thing in the situation that there is a person who has hatred for others, and has a possibility to be indignant.

William Kerry who is called the mission father in modern times left the famous saying, "Expect the greatest thing from the greatest God. And, in the midst of it, make an attempt the greatest thing for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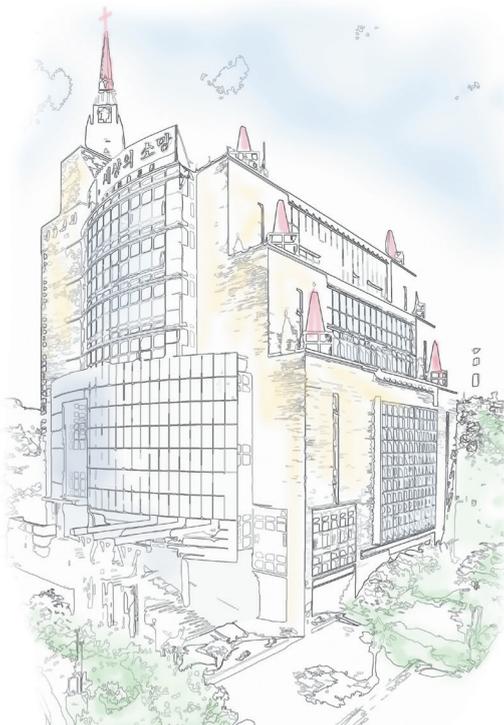
How many times have you ever failed during the life that you have led? How many times have you lost a chance? How many time have you ever had a difficult time which you could not understand? However, now, I hope that you must expect God's new thing.

My beloved Christians,

As, "The best is not yet to come!", The best thing has not yet come to us. The best thing has not yet come to our life, to family, at work, and to the community of church.

We are the primate that exists to rule and conquer the world. Such a great seed is still left in the midst of us.

By expecting the greatest thing from the greatest God, and by making an attempt for him,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and I will live our life for the glory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6 섬김위원 임명

## 오늘 I·II·III부 예배 시 / 3부예배 후 교구총회

오늘 1, 2, 3부 예배시 2016년도 남녀 서리집사 및 협동집사, 협동권사, 은퇴협동집사, 은퇴협동권사, 교구일꾼, 각 위원회, 교사, 찬양대원, 각 부서 섬김위원을 임명한다.

오늘 주보와 함께 배부된 2016년도 섬김위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부서의 섬김위원들은 감사함으로 임명 받아 2016년 한 해 교회를 섬기

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모든 2016년도 섬김위원들은 2016년 1월1일자로 해당 부서 봉사를 시작한다.

2015년도 섬김위원들은 12월말까지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며, 12월 한달 동안 모든 업무를 인계한다.

한편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교구 총회로 모인다.

# 항존직 교육 훈련

## 12월12일(토) 오전 10시 - 본당

서울교회 항존직분자(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를 대상으로 12월12일(토) 오전10시 본당에서 항존직 교육 훈련이 열린다.

이번 교육은 항존직으로서의 직임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신앙의식구조의 갱신』을 위해 이론중심의 교육과 삶의 능력과 실천력을 배양시켜주는 청지기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항존직 훈련을 통하여 서울교회 모든 항존직분자는 신앙갱신과 성숙을 가져와 사회 변혁자로서

의 청지기 상을 정립하도록 한다.

교육순서는 오전10시 등록 후 찬양과 경건회를 갖고 제 1특강 (강사 김형준 목사 : 동안교회 담임)이 진행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제 2특강 (강사 이진호 목사 : 충신교회 담임)이 진행되며 기도회를 마친 후 폐회될 예정이다.

서울교회 모든 항존직분자들은 반드시 이번 교육에 참여하여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 2016년을 섬길 일꾼들



김광욱 집사 (스데반회장)



손재겸 권사 (살롬권사회장)



이영숙 권사 (제2권사회장)



정미연 권사 (제1권사회장)

지난 주 우리교회는 2016년을 이끌 일꾼들을 임명하였다. 스테반회는 회장 김광욱 집사, 부회장 송인수 집사를 각각 임명, 제1권사회 회장으로는 정미연 권사, 부회장 전숙향 권사, 제2권사회는 회장 이영숙 1 권사, 부회장 백정순 권사, 살롬권사회는 회장 손재겸 권사 부회장 윤갑숙 권사를 임명하였다.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봉사하기 바란다.

# 서울교회 성도 차량 등록 요청

서울교회는 교회의 안전과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 차단기 운용을 앞두고 서울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가정의 차량 등록을 받는다.

사무국에 비치된 차량등록 카드에 본인의 기본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12월 27일까지 등록하기 바란다. 주차 차단기는 새벽기도회와 주일에는 하루 종일, 수요일에는 1, 2부 예배 시간 전후 2시간, 금요기도회 시간 전후 2시간과 특별 행사 시에는 완전 개방할 예정이다.

# 2016 농어촌100교회 한가정 한선교사 / 비전2020

## 후원자 모집

## 사무국에서 접수

2016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비전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자 접수를 사무국에서 받는다.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이웃과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2월 주요행사

- 12.6(주) : 2016년 섬김위원 임명 -1, 2, 3부 예배 시 3부 예배 후 교구총회
- 12.12(토) : 항존직 교육 훈련, 오전 10시
- 12.13(주) : 3부 예배 후 교사 총회 성탄축하찬양(가브리엘찬양대) -찬양예배 시
- 12.20(주) : 세례식, 성탄축하 특별행사 (교육부서 전체) 찬양예배 시
- 12.24(목) : 성탄 전야예배
- 12.25(금) : 성탄절 새벽예배 - 오전 5시 성탄절 축하예배 - 오전 9시, 11시
- 12.27(주) : 항존직 은퇴식, 장로안식년, 장한 어머니상 시상, 주간성경공부 시상 - 찬양예배 시 특별제직회 - 찬양예배 후
- 12.31(목) : 송구영신예배 오후 11시20분~2016년 1월 1일(금) 오전 0시 30분

# 이종윤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 근심에서 자유를 얻는 비결 - I (마 6:19-34)

### 근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아담 이후 사람에게는 불안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다. 불안과 공포는 오늘 이 시대뿐 아니라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왔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불안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염려에 휩싸여 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립나테스'라고 하는데 이는 '분열, 분리한다'는 뜻으로 사람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인격을 파탄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염려는 백해무

익한 것이다. 염려했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고,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염려는 결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경제속도는 급속도로 발전 되고 사회복지제도는 점점 안정되어 연금제도나 보험제도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며,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각종 의약품이 개발 되고 심지어는 산소통까지 침대 옆에 장치해 놓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간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하고, 정신적 질병으로 허탈감에 빠져 고통 중에 헤매이고 있다

이와 같은 근심과 염려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대로의 근심이 있으니 근심 없는 사람이 있다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시체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크고 작은 근심과 염려 속에 다 매어있게 되어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시달리는 인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마 6:25).

목숨과 몸을 영육을 말한다. 염려는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어떤 종류의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

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이다. 이 말씀은 미래를 위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내일 시험을 치를 사람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Stop worring, 다만 근심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것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빌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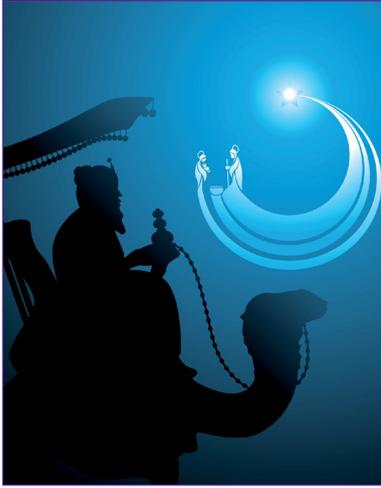
사도 바울은 이것은 근심하고 저것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도무지 아무 것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한다.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마다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 것이든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것이든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받아야 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벧전 5:7).

너희 염려를 내가 안고 울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신다. 우리의 염려를 맡아 주실 분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기에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할 일이 생길 수는 있으나 근심할 필요는 없다. 근심은 성도의 삶을 질식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근심에서 자유케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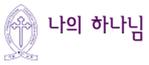
(다음 주 계속)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6-7)



## 이슬비와 안개비에도 감사



전인화 권사 (2교구)

무엇보다 소망부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빨리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3일 새벽, 잠결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 침대를 방바닥으로 착각하여 발을 내딛다가 침대 아래로 나뒹굴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고관절을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라는 작은 사명을 받고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 고래 뱃속으로 떨어진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일간 고래 뱃속에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입원하여 곧바로 수술을 하고 열흘 후에 실밥을 뽑은 후에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가보니 사람이 산다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라는 것이 손잡이를 잡고 발끝으로 몇 발자국 걷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두 발로 맘껏 걷고 뛰었었는데... 사람이 참으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별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꽃처럼 예쁜 처녀 아이가 코에 고무호스를 끼고 의식도 없이 멀거리 눈만 뜨고 있는가

하면, 한창 사회생활을 할 청년, 아이 아빠 같은 사람들이 여기 저기 수술을 하여 사경을 헤매고 온몸을 비틀고 있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들이 언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사람노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인생이 정말 덧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후천적으로 농아가 된 아들 3명을 두었습니다. 저마다 목적과 뜻을 두고 눈물과 기도로 키웠고 2명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농아인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하나님 앞에 회한



의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래도 시마다 때마다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서 보름 남짓 지내고 보니 날마다 주시는 이슬비와 안개비 같은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 많이 회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빨리 회복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작은 소명이라도 받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다시스로 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서울교회 온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소망부 성경퀴즈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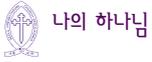
지난 주일 소망부 성경퀴즈대회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면 소망부에서는 1년간 배운 성경지식을 마음껏 뽑내는 성경퀴즈대회가 열립니다.

성경 퀴즈대회가 열릴 즈이면 예상문제가 돌아다니고, 일흔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들이 소년소녀처럼 들뜨서서 답안지를 들고 다니시며 암기하시는 모습이 얼마

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올해는 반별로 대항을 했지만 36문제를 온 소망부 학생들이 다 답을 맞추셔서 1등 없는 기이한 퀴즈대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얼마나 단지요. 우리교회 소망부 어르신들,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잡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호산나대학 발달장애인 학생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호산나대학 사무자동학과 권정석, 흥진혁, 한정호, 노인케어학과 왕한나 학생이 발달장애인에게는 사법고시와 같이 어렵다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다.

요양보호사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일정시간 교육만으로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였지만, 2010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 자격시험제로 변경되면서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없이 치러진 제16회 요양보호사시험(2015년 7월 11일)은 전체 78.7%의 합격률을 보이는 가운데, 권정석(24세, 지적장애 3급), 흥진혁(23세, 지적장애 3급), 한정호(22세, 지적장애 2급), 왕한나(24세, 지적장애 2급)학생이 발달장애인에게 사법고시와 같이 어렵다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다.

왕한나는 기다리던 요양보호사 합격통보가 꿈만 같다고 하면서 "저 혼자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었어요. 학교 수업과 자격증 공부를 함께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호산나대학 교수님들이 일과 후 개별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려요."라며 감사의 소감을 전하기도 하였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성공한 4명의 학생들은 요양원, 병원 등에 안정적으로 취업되어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는 0순위 학생들이 되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요양보호사가 되고자 하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취업 사관학교인 호산나대학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2006년 노인케어학과를 국내 최초로 개설하였고,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개발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등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업군 발굴과 교육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45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졸업생 28명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서울시립서부요양병원, 강동성모병원 등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 ■ 특별 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호산나찬양대(대장:전화진 권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구민영 집사의 지휘로 "교회의 참된 터는 (Jay Althouse 편곡)", "산으로 올라가네 (Spiritual)", "모든 것 지으신 주님 (Joseph M.Martin 편곡)" 세 곡을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성도, 피아니스트 흥혜란 집사가 함께 연주한다.

###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2월8일(화)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기획모임을 소집한다. 12월9일(수) 한국교회, 군선교의방에서 축도를 한다. 12월10일(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한국교회평신도연합회 서울지역모임을 소집한다. 12월12일(토) 몽골IUB이사회 개회설교를 한다.

■ 주일식당봉사 : 마리아 전도회(12.6) 뱀뱀 전도회(12.13)

■ 금주의 식사 제공 : 김조일 권사 지녀 박원정 박석원 박혜정 박진원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6년도 섬김위원회로 임명된 각 위원회와 부서를 삼길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2.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이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3. 항존직 교육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2016년도 선교회, 전도회 회장 부회장

- 빌 립(30-39세) : 한대석 집사 김성환1 집사
- 안드레(40-44세) : 오윤걸 집사 노창훈 집사
- 베드로(45-49세) : 김승록 집사 라지용 집사
- 바 울(50-54세) : 김광태 집사 신호용 집사
- 엘리야(55-59세) : 예치수 집사 신봉하 집사
- 모 세(60-64세) : 이종창 집사 정창빈 집사
- 이 삭(65-70세) : 최규초 집사 권장환 집사
- 아브라함(71세 이상) : 이찬호 집사 양득춘 집사

- 도르가(30-39세) : 조성경 집사 김민아3 집사
- 루디아(40-44세) : 양종숙 집사 박윤정4 집사
- 뱀 뱀(45-49세) : 최정숙4 집사 정호희 집사
- 마리아(50-54세) : 박수옥 권사 석상화 권사
- 에스더(55-59세) : 김유경 권사 최성희1 권사
- 한 나(60-64세) : 서희숙 권사 최미아 권사
- 리브가(65-70세) : 장정화 권사 한춘홍 권사
- 사 라(71세 이상) : 이재순 권사 육순자 권사

## 여전도회 연합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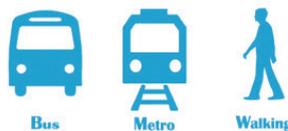
12월 9일(수) 오후1시, 101호

여전도회 연합총회가 12월 9일(수) 오후 1시 웨스트민스터홀에서 모인다. 이 날 말씀은 박노철 담임목사가 전하며 2015년도 구 회장단 인사와 2016년도 신입 회장단 소개 시간이 있다. 여전도회 회원은 전원 참석 바란다.

### 알 림

앞으로 웨스트민스터홀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새벽기도회 후부터 밤 10시까지 102호를 기도실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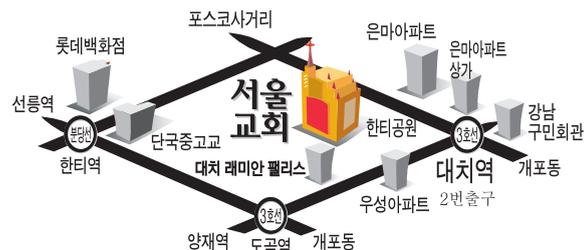
### B.M.W. 운동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